

# 내촌 면민 한마음 걷기대회

### 18일, 5백여명 5km 구간 걷기

내촌면체육회(회장 김용길)가 가 5백여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8시부터 9시



▲제2회 내촌면민 한마음 걷기대회 출발(아이들은 경품을 향해 뛰고있다.)

30분까지 내촌면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걷기대회는 내촌면사무소에서 출발하여 베어스타운을 지나 내촌면사무소 구간 5km를 걸

었다. 자전거와 축구공, 줄넘기 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돼 참가자들을 설레게 한 이날 대회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걷기대회는 4세 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행사로 주목받았다. 한편, 이날 걷기대회를 주최한 내촌면 김용길(원안 사진) 체육회장은 "오늘 걷기대회를 통해 내촌면민의 단합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박찬익 내촌면장은 "오늘 아주 좋은 날씨에 면민 여러분들과 함께 걷기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반갑다"며 "오늘 대회가 건강한 삶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포천시의회 의원은 "모두 다같이 즐겁게 걷기대회에 참가해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환한웃음과 함께 내촌면민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 포천시청 공무원배드민턴팀 '정상' 차지

### 제4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대회에서 우승



### 도지사기 생체축구대회 열려

1부 안산시, 2부 안성시가 우승

제4회 경기도지사기 생체축구(40대) 대회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안성시에서 개최됐다.

포천시에서는 이상만 씨를 단장으로 최용성 감독, 오덕규 코치, 김영근 주무 등 임원 4

명과 선수 20명 등이 출전했으나 안타깝게도 예선전에서 탈락해 고배를 마셨다.

이날 대회 1부 우승은 안산시, 준우승은 김포시, 3위는 수원시와 광명시가 2부 우승은 안성시, 준우승은 연천군, 3위에는 구리시와 오산시가 각각 차지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 갈월중, 원반던지기 전국최고 도전

갈월중학교(교장 이윤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및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전에서 원반던지기 부문 1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두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갈월중학교의 촉망받는 기대주 김국겸 학생은 이날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전에서 원반던지기 부문 1위를 차지해 다음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의 우승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 1학년의 임원재, 김동환 학생도 각각 400m 학년부 1위와 100m 학년부 3위에 올라 앞으로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영복 인력**

현장  
쓰실분·하실분  
기공대기

문의 전화 031)1532-5069  
011-9155-5069  
017-744-8337

동호회 탐/방=스포츠피싱 팀 류강 카리스마

## “고기 많이 낚아 우승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



▲은 정신을 집중해 연습하고 있는 회원들.

### 깨끗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 선도할터

내 다른 팀에 뒤지지 않는다"라며 "요즘에는 다른 지역에 가도 포천 카리스마는 알아준다"고 자부한다.

지난 4월 처녀 출전한 전국 50개 명문클럽전에서의 9위 입상과 동부연합대회에서의 준우승 등 짧은 연혁에 비해 화려한 수상경력이 이를 증명한다.

김 총무는 이에 대한 비결 중 하나로 "최근 하고 거의 매일 연습하면서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분석하고 연구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고기를 빼앗아오는 법, 수온에 따라 떡밥을 달리하는 법 등 이기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익힌다.

11명의 회원 모두 각자 생업에 종사하기에 시간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 팀 전용낚시터인 수목원 가든낚시터에서 2~3시간씩 연습한다. 김재현 팀장은 "찌가 1mm만 움직여도 우리는 바로 낚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이 빠져도 모를 정도로 집중해야 해요"라며 말했다. 또 신민규 회장은 "이렇게 은 정신을 모아 경기를 치른 뒤 이겼을 때 가장 짜릿하고 상쾌하다"라고 말을 이었다.

류강 카리스마는 스포츠피싱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래 들어 낚시인들이 낚시터에서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통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했던 것.

류강 카리스마는 이런 이미지에서 탈피해 환경친화적인 스포츠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주나 쓰레기 투기 금지는 물론이고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낚은 고기를 놓아주는 방법) 방식으로 생태계 파괴도 최소화한다.

또 류강 카리스마가 전국대회에 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포천시의 홍보도 되고 있다.

류강 카리스마 회원들은 앞으로 꾸준한 연구와 힘있는 연습으로 반드시 전국투어 우승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개인전이든, 단체전이든 최고의 스포츠 피싱 팀으로 전국에 이름을 날리겠다는 것.

회원들은 여기서 얻은 상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성금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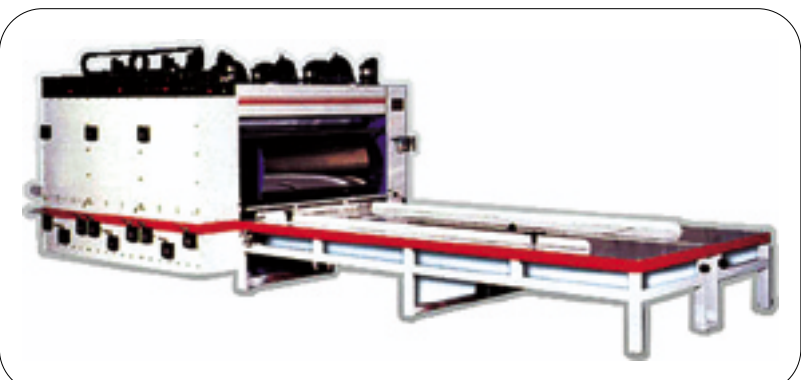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21C 포장의 새바람 '은창수출포장'



대표 이희선



★ 생산 품목  
내수용, 수출용, 식품용, 공업용, 농산물, 가구 등 다수

★ 박스 종류  
골판지박스, 톨박스, 컬러박스, 종이박스

(주)은창수출포장 EUNCHANG.co.kr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2리 645-3  
전화 : 031)534-5753~5/팩스 : 031)534-5756